

#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문숙자<sup>1</sup>, 이윤정<sup>2\*</sup>

<sup>1</sup>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Perceived by Out-of-school Youths

Suk-Ja Moon<sup>1</sup>, Yoonjeong Lee<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5차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고, 총 14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분석, 경로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와 또래 애착은 우울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 $\beta=-.23$ ,  $p=.006$ , 95% CI:  $-0.33\sim-0.12$ )과 또래 애착( $\beta=-.18$ ,  $p=.002$ , 95% CI:  $-0.31\sim-0.08$ )은 생활만족도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향상하고 우울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 우울, 학교 밖 청소년, 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among Korean out-of-school youths. The study participants of 145 out-of-school youths derived from 5th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conducted by using SPSS 26.0 and AMOS 26.0. Parent attachment direct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direct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to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to depression. Parent attachment ( $\beta=-.23$ ,  $p=.006$ , 95% CI:  $-0.33\sim-0.12$ ) and peer attachment ( $\beta=-.18$ ,  $p=.002$ , 95% CI:  $-0.31\sim-0.08$ ) had indirect effects on depression through mediating life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e will discuss implications for possible policies and programs to help out-of-school youth successfully integrate a satisfying life and safely improve depression.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Out of School Youth,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Yoonjeong Lee(hilde70@naver.com)

Received February 5,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March 22, 2021

Published Ma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대다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문적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학습해 나간다. 하지만 청소년들 중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중도탈락자, 학업중단 청소년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9세~24세 청소년 중에서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1]. 교육통계서비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학생의 학업중단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중단을 가장 많이 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6년 1.3%, 2017년 1.4%, 2018년 1.5%, 2019년 1.6%, 2020년 1.7%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2].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함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결코 간과될 만한 숫자가 아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향후 이들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부적응이 지속하는 경우 그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고등학생의 28.2%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5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청소년의 39.9%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 중 자살시도 비율이 3.0%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울 경감 내지는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3]. 우울은 올직한 기분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 중 하나이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우울 발생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4]. 우울은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서부터 불안, 행동장애, 물질 관련 장애 및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고[5], 청소년기 우울은 이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6].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또래 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7].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발달과정

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학력이 증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구직과 적응의 어려움, 실패자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으로 인해 우울 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6,8]. 이들은 제도권 학교를 벗어난 뒤에 긍정적인 면으로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삶의 여유' 등을 꼽았고, '진로나 진학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놀 수 있는 환경'을 필요한 도움으로 응답하였다[9].

애착은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 부모 애착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에서 처음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이룬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만, 부모와 부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부모와의 애착은 향후 또래, 교사, 이웃 등 넓어진 인간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완화 및 생활만족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관된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 지지[11]와 부모의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고[12],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13]에서는 친구 애착,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 및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의 이해와 격려를 받고 힘든 일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생활만족도는 향상되었다[14].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일상의 활동에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낙관적 태도와 감정을 가지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이다[15,16].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5,17].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에서 주변의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는 자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8].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만족도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이 조사는 응답 내용이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본 연구는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145명이었다. 대상자 연령은 만 17세에서 23세이며,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료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부합하기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로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관측 변수당 15배를 근거로 하였을 때[19], 총 표본의 수는 60(4×15)명으로 산출되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소 표본의 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부모 애착

부모 애착은 Choi 등[20]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 2.3.2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Lee 등[21]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3차년도에 사용한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 2.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Lee 등[22]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고1 패널에서 사용한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 2.3.4 우울

우울은 Lee 등[23]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63.4%, 여성 36.6%로 남성이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유' 응답이 75.9%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부 41.4%, 모 45.5%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 51.7%로 가장 많았다. 흡연 유무는 '유' 62.1%, 음주 유무는 '유' 83.4%로 나타났다.

### 3.2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정도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애착은 평균이 4점 만점에  $2.83 \pm 0.55$ 점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은  $3.12 \pm 0.55$ 점(4점 만점), 생활만족도는  $2.55 \pm 0.61$ 점(4점 만점), 우울은  $2.10 \pm 0.58$ 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 3.3 대상자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생활만족도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

Table 2와 같이 우울은 생활만족도( $r = -.69, p < .001$ ), 또래 애착( $r = -.41, p < .001$ ), 부모 애착( $r = -.37, p < .0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 애착은 생활만족도( $r = .47, p < .001$ ), 또래 애착( $r = .28, p = .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래 애착은 생활만족도( $r = .40, p < .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과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GFI=1.00$ ,  $NFI=1.00$ ,  $IFI=1.00$ ,  $CFI=1.00$ 으로 나타났고, 적정식별모형(just-identified model)로 본 경로 모형을 확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3 및 Fig. 1과 같다.

먼저, 부모 애착( $\beta = .38, p < .001$ )과 또래 애착( $\beta = .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92 (63.4)
	Female	53 (36.6)
Age (year)	Min ~ Max	20.71±1.24 17.00-23.00
Economic status	Low	61 (42.1)
	Middle	56 (38.6)
	High	28 (19.3)
Coresidence with parents	Yes	110 (75.9)
	No	35 (24.1)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9 (20.0)
	High school	60 (41.4)
	≥College	35 (24.1)
	Unknown	20 (13.8)
	Absence	1 (0.7)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2 (15.1)
	High school	66 (45.5)
	≥College	26 (18.0)
	Unknown	31 (21.4)
Parents' marital status	Married	75 (51.7)
	Divorced	37 (25.5)
	Separated	13 (9.0)
	other	20 (13.8)
Smoking	Yes	90(62.1)
	No	55 (37.9)
Drinking	Yes	121 (83.4)
	No	24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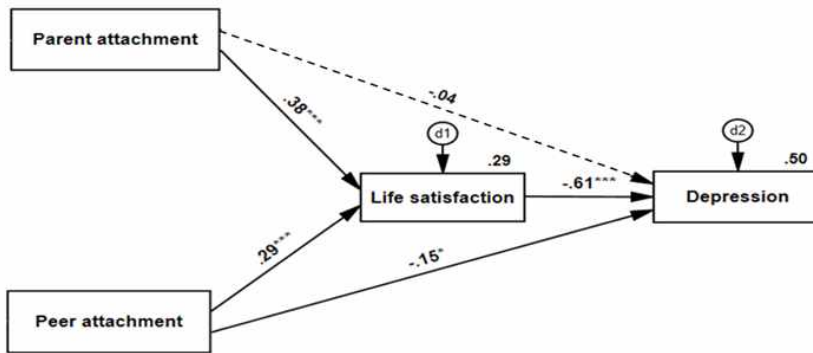
M=Mean; SD=Standard deviation.

$p < .001$ )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beta = -.61, p < .001$ )와 또래 애착( $\beta = -.15, p = .019$ )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5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정하였고,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을 하였다. 검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부모 애착이 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23, p = .006, 95\% \text{ CI: } -0.33 \sim -0.12$ )와 또래 애착이 생활만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M±SD	Range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r (p)	r (p)	r (p)	r (p)
Parent attachment	2.83±0.55	1-4	1			
Peer attachment	3.12±0.55	1-4	.28 (.001)	1		
Life satisfaction	2.55±0.61	1-4	.47 (<.001)	.40 (<.001)	1	
Depression	2.10±0.58	1-4	-.37 (<.001)	-.41 (<.001)	-.69 (<.001)	1



\* $p < .05$ , \*\*\* $p < .001$ .

Fig. 1. Path analysis results.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for the Path Model

Path	$\beta$	S.E.	C.R. ( $p$ )	SMC
Parent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38	.08	5.25 (<.001)	0.29
Peer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29	.08	3.93 (<.001)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61	.07	-8.69 (<.001)	0.50
Parent attachment → Depression	-.04	.07	-0.64 (.524)	
Peer attachment → Depression	-.15	.07	-2.35 (.019)	

C.R.=Critical ratio;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Bootstrapping Outcome of Indirect Effect

Path	Indirect effect ( $p$ )	S.E.	95% CI	
			Lower	Upper
Parent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23 (.006)	.05	-0.33	-0.12
Peer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18 (.002)	.06	-0.31	-0.08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족도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18, p=.002, 95\% \text{ CI: } -0.31 \sim -0.08$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한 결과,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는 우울을 결과 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원인 변인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선정하였고, 이 영향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부모 애착은 평균이 4점 만점에 2.83점, 또래 애착은 3.12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4점 만점으로 평균 환산한 부모 애착 2.64점, 또래 애착 3.21점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생활만족도는 4점 만점에 2.5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평균 환산한

3.23점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대상자의 우울은 4점 만점에 2.10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청소년에게 측정된 평균 1.88점[5]과 비교하여 우울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개선하고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남녀청소년 모두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하며, 힘든 일을 의논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4]와 관련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7세에서 23세의 청소년들로서 연령대, 학교 밖의 상황 등은 상이하나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 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일관된 중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 애착이, 성년의 경우는 또래 애착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났던 결과[25]를 살펴볼 때, 청소년의 시기별 애착 대상자에 변화가 있었고, 애착 대상자에 따른 개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애착의 대상이 부모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부모교육과 더불어 부모와 함께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모 애착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애착의 대상이 또래인 학교 밖 청소년은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또래 애착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우울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아니었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사회적 낙인, 우울 등의 문제를 촉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라는 결과[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보호변인 중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던 결과[13],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 및 정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26]를 살펴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부모 애착은 부모지지, 긍정적 양육행동, 수용적 양육행동, 부모-자녀 관계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어 개념 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생활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고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ark와 Lee [27]는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관계의 향상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했을 때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부모 애착이 우울에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했을 때 간접효과가 확인된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긍정적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 애착도 증진되었던 선행연구결과[17]와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보다 또래를 애착의 대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28]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여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생활만족도라는 매개변인에 의해 우울에 간접효과가 있었던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보호요인으로 부모 애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와 Moon [29]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착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진로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과 진로장벽은 우울의 영향 변수이므로[6,8] 부모 애착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차차 독립되어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인 또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부모보다 또래를 애착의 대상으로 선호하며[28], 또래 간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도전적으로 해결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17]와 맥을 같이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분석을 한 연구에서 또래 애착 등이 복합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 등이 삶의 만족도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던 점을[30] 고려할 때 또래 애착과 우울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평균 연령 20.71세인 본 연구 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와 학업중단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고려할 때, Kim과 Choi [25]의 연구에서도 또래 애착은 성년이 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유사한 연구결과임이 확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둘러싼 밀접한 환경 중에 교사의 역할이 감소한 만큼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

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변인들의 통합적인 증진과 고려가 필요하다[1]. 본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애착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와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Lee 등[31]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초기에 또래와 부모의 애착이 성인 초기 우울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학업중단 2년 후에는 성인 초기 우울증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우울 경향이 더 높았다[32].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대를 반영하여 부모 애착 및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반복연구와,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의 중단적 영향에 관한 반복연구들을 통해 근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하는 주된 일을 기준으로 취업형, 진로탐색형,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니트형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니트형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단절이 우울 등의 여러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갖게 하므로, 우울을 낮추고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찰해볼 필요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시기별, 유형별, 남녀별 차이를 고려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예측요인을 고려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은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Sarason 등[34]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뜻하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속성으로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서 이는 주요한 보호 요인이며,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상을 극복하고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35].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청소년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 중단이라는 위기 상태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는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 여전히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원활한 또래 애착과 부모 애착 관계를 촉진하는 통합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원시자료에 포함된 문항에 국한하여 연구변수가 분석되었기에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주요 변수를 세분화하여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일관되게 심리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면서도 중요한 관계를 회복 및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함을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경감에 생활만족도 또한 중요한 긍정심리 변인임을 규명함으로써, 우울 중재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는 또래 애착과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며,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또래 애착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및 생활만족도의 증진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우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생활 즉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을 함께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흥미를 지닐 수 있는 또래가 함께 활동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건전한 또래 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1] Y. K. Hwang & E. Y. Hong. (2018). The current status of life and happiness of out of school youth. *Journal*

- of Digital Convergence*, 16(2), 57-64.  
DOI: 10.14400/JDC.2018.16.2.057
- [2]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2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Online].  
<https://kess.kedi.re.kr/index>
-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nlin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68&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68&conn_path=12)
- [4] H. J. Woo & J. M. Choi. (2004).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re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91-200.
- [5] S. H. Lee & M. S. Hoe. (2015).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7(2), 241-264.
- [6] D. J. Park & N. Y. Kim. (2019).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5(3), 71-87.
- [7] I. J. Choi, S. H. Mo, J. H. Kang, Y. H. Kim & J. Y. Lee. (2011). A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3-10.
- [8] M. S. Kim. (2019). Career barriers and career optimism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tigma an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mong school dropout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1029-1056.  
DOI: 10.22251/jlcci.2019.19.21.1029
- [9] A. M. Cho & J. S. Lee. (2014). A qualitative study on life and needs of school drop out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7), 145-170.
- [10] M. T. Greenberg, J. M. Siegel & C. J. Leitch.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DOI: 10.1007/bf02088721
- [11] E. A. Jang & H. H. Chung. (2019).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chool connectedness on the links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30(1), 313-340.
- [12] H. E. Kim & J. U. Kim.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 attachment, dysfunctional attitude, ego-identity,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365-392.  
DOI: 10.22251/jlcci.2016.16.9.365
- [13] E. H. Gong & W. Y. Kim. (2017). Meta-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3), 61-75.  
DOI: 10.21097/ksw.2017.08.12.3.61
- [14] M. K. Choi. (2014).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school-related adjustments: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6), 651-668.  
DOI: 10.6115/fer.2014.055
- [15] S. H. Cho & S. Y. Park. (2015). Life satisfaction factors of early Adolesc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23(4), 801-818.
- [16] E. Diener & F. Fujita.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17] Y. M. Ha & S. H. Jeong. (2018).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3), 525-538.  
DOI: 10.21097/ksw.2018.08.13.3.525
- [18] D. L. Feldman, A. T. Smith & B. L. Waxman. (2017). *Why we drop out: understanding and disrupting student pathways to leaving school*. New York and London : Teachers College Press.
- [19] J. Stevens.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Mahwah, NJ : Erlbaum.
- [20] I. J. Choi, S. H. Mo, S. Y. Lee, H. I. Kim & J. Y. Lee. (2012). *A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I: General report*.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 [21] K. S. Lee et al. (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2] J. W. Lee et al. (2013).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V*.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3] K. S. Lee, H. J. Baek, J. W. Lee & J. Y. Kim. (2011).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4] Y. M. Kim & Y. S. Lim. (2014). Change patterns of adolescents' self-control employing the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Tests of the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5), 303-327.
- [25] J. H. Kim & H. J. Choi. (2020).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youth: Multiple mediation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 343-362.  
DOI: 10.22251/jlcci.2020.20.21.343
- [26] Y. S. Oh. (2012).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on adolescent's anger and school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0(3), 91-104.



- [27] H. J. Park & J. S. Lee. (2013).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o depress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6(1), 83-106.
- [28] A. B. Nickerson & R. J. Nagle. (2004). Parent and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223-249. DOI: 10.1177/0272431604274174
- [29] J. W. Park & S. H. Moon. (2020).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n career barriers through self-esteem among the out-of-school youth: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Forum for Youth Culture*, 63, 5-30. DOI: 10.17854/ffyc.2020.07.63.5
- [30] J. H. An, Y. D. Yun & H. S. Lim. (2016).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197-208. DOI: 10.14400/JDC.2016.14.2.197
- [31] J. H. Lee, E. H. Jo, M. H. Park & H. K. Kim. (2020).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support on school dropouts'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tigm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65-180. DOI: 10.35574/KJDP.2020.6.33.2.165
- [32] C. K. Kim, M. S. Lee, N. I. Park & M. K. Cho. (2019). A structural analysis between depression, adaptability and game addiction tendency in out-of-school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5(4), 245-263. DOI: 10.33770/JEBD.35.4.13
- [33] E. G. Oh. (2014). The difference among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by types of youth who are dropouts of schoo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2(2), 65-80.
- [34] B. R. Sarason et al. (200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287. DOI: 10.1037/0022-3514.60.2.273
- [35] S. J. Park. (201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who had relational loss experienced on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s of deliberate rumin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0, 71-94.

문 숙 자(Suk-Ja Moon)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전문직업적 용기, 심혈관질환

환자, 교수학습법

· E-Mail : msj@masan.ac.kr

이 윤 정(Yoonjeong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근로환경, 근로자 건강증진, 삶의 질

진, 삶의 질

· E-Mail : hilde70@naver.com